

NOW

What's Hot



1 르 뫼리스를 이끌어갈 새로운 스태프
2 디자이너 피에르 타송(Pierre Tachon)이 디자인한 도자기에 슬로 쿠킹 방식으로 랍스터와 해삼을 요리해 선보이는 랍스터 쿡팻.

PARIS

뒤카스 제국의 신성, 르 뫼리스

미슐랭 3스타 셰프 알랭 뒤카스(Alain Ducasse)가 그의 미식 제국에 새 레스토랑 '르 뫼리스(Restaurant Le Meurice)'를 추가했다. 장소는 바로 자신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파리의 럭셔리 호텔 뫼리스(Le Meurice) 안. 알랭 뒤카스란 이름 외에도 주목받은 이유는 전에 있었던 스타 셰프 야너 알레노가 떠나며, 메인 레스토랑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든 상징성 때문이다. 킬리리 공원이 보이는 전망과 베르사유 궁전 내 평화의 방을모티브로 한 살내는 방문객들에게 '놀라운 순간'을 선사한다. 메뉴는 제철 식재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데커레이션을 간소화하고, 시즌 메뉴라 하더라도 당일 최상의 상태가 아닌 재료는 과감히 메뉴에서 제외할 예정. 새 레스토랑을 위해 선보인 시그너처 디시 '랍스터 쿡팻'도 기대되는 메뉴다. **writing** 정재훈(파리 통신원)

Add Hotel Le Meurice, 228 Rue de Rivoli, 75001 Paris

Tel (33)1-44-58-1010 Web www.dorchestercollection.com/en/paris/le-meurice/restaurants-bars/alain-ducasse-au-hotel-le-meu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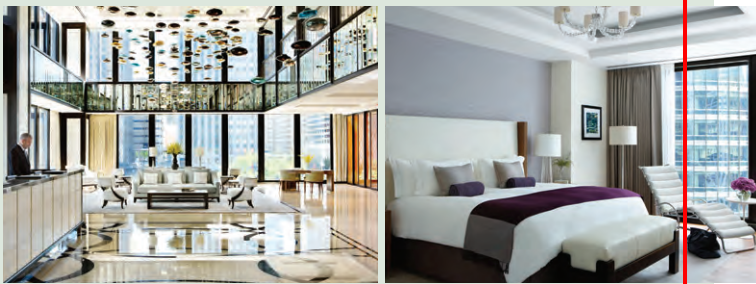


CHICAGO

시카고의 새로운 랜드마크, 호텔 랭엄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디자인한 시카고의 랜드마크인 옛 IBM 빌딩 안에 럭셔리 호텔 '랭엄 시카고(The Langham Chicago)'가 오픈했다. 52층 중 13층부터 자리 잡은 랭엄 시카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디자인한 건물을 사용하는 행운의 호텔이 됐다. 268개의 룸과 48개의 스위트룸을 갖춘 이곳은 시카고에서 가장 넓은 크기를 자랑하며 시카고 강이라는 뷰를 보너스로 갖고 있다. 또, 로에의 손자이자 건축가인 더크 로한(Dirk Lohan)이 디자인한 랭엄 클럽과 애프터는 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빌리온 라운지도 주목할 만한 요소다. **writing** 정재훈(파리 통신원)

Add The Langham Chicago, 330 North Wabash Avenue, Chicago, IL 60611
Tel (1)312-923-9988 **Web** www.chicago.langhamhotel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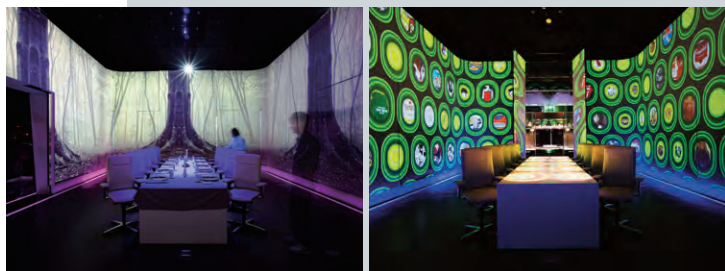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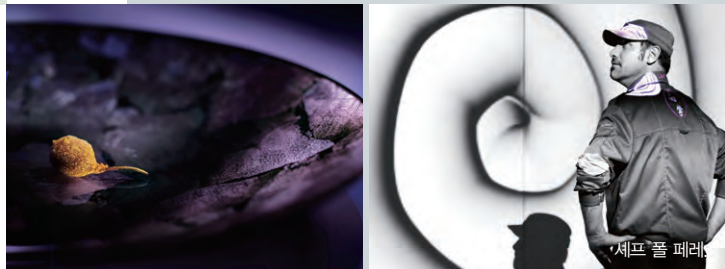


SHANGHAI

4시간 동안의 미식 황홀경

수많은 고급 레스토랑이 모여들고 있는 상하이에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 레스토랑이 오픈했다. 바로 이름에서부터 공상과학적인 인상을 주는 '울트라 바이올렛(Ultraviolet)'. 상하이의 인기 레스토랑 'Mr & Mrs Bund'를 운영하는 프랜치 셰프 폴 페레(Paul Pairet)가 아방가르드한 요리와 이색적인 다이닝을 선보이기 위해 문을 연 곳이다. 딱 10명만 수용 가능한 테이블 하나에 7개의 HD 프로젝터와 36개의 스피커 시스템, 환기 시스템이 장착된 룸은 20가지로 구성된 코스 메뉴가 하나씩 서빙될 때마다 각 요리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음식에 어울리는 테마로 벽의 데커레이션과 음악, 심지어 공기의 흐름까지 달라지는 것! 잊지 못할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이 미식 코스는 약 4시간 정도 이어진다. **writing** 정재훈(파리 통신원)

Add Ultraviolet, c/o Bund 18, 6/F, 18 Zhongshan Dong Yi Road, Shanghai 200002 **Tel** (86)021-6323-9898 **Web** http://uvbypp.cc



editor 정승혜



PARIS

파리 16구의 부티크 호텔

강 건너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 16구는 고급 주택가로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부촌이다. 이곳에 새로운 부티크 호텔 '펠리시앙(Hotel Felicien)'이 문을 열었다. 1970년대의 인기 디자이너 테드 라피뒤스(Ted Lapidus)의 아들인 패션 디자이너 올리비에 라피뒤스(Olivier Lapidus)가 디자인한 이곳의 테마는 오프 큐튀르. 각층을 다양한 채도의 천으로 꾸며 공간들이 마치 패션쇼의 런웨이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다. 고급스러운 주택가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길 원하는 이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호텔이다.

writing 정재훈(파리 통신원) **Add** 21, rue Felicien David 75016 Paris
Tel (33)1-55-74-0000 **Web** www.hotelfelicienparis.com